

작품 내용

제 목	창작자의 권리
내 용	깊은 밤, 별빛이 하늘을 장식하듯 한 편의 작품이 내 마음에 스며든다. 화려한 그림 한 장에도 누군가의 고민과 열정이 깃들어 있고 짧은 문장 한 줄에도 수많은 생각과 시간이 쌓여 있다. 나는 때때로 아름다운 작품을 마주하면 그 감동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진다. 창작은 어느 날 우연히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끝없는 노력과 인내로 맺어진 열매이기에 그 열매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곧 창작자를 존중하는 일이다. 작품 또한 만든 이의 이름 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낸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작품을 감상하는 마음 너머로 보이지 않는 땀과 시간에 감사하며 저작권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을 이어 간다. 그것이 창작의 빛을 지키는 길이며 더 많은 꿈이 세상에 피어나는 길이기 때문이다.